



와우북페스티벌

책 향기 물씬 풍기는 흥대거리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흥대거리에 책 향기가 물씬 풍기는 행사가 열렸다. 다름아닌 9월 22일(금)부터 9월 24일(일)까지 열린 '제2회 와우북페스티벌' 이 바로 그것.

'와우북페스티벌' 은 (사)한국출판인회의가 주최하고,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집행위원회가 주관,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클럽문화협회가 후원한, 300여 개의 출판사가 밀집한 흥대 거리에서 열린 대규모의 책 축제이다. 사람들에게 책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와우북페스티벌' 은 책에 친근함

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 중심의 문화축제로 기획· 진행 돼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책의 새로운 가치 발견

'제2회 와우북페스티벌' 은 각각 '거리로 나온 책', '함께 읽는 책', '우리가 쓰는 책' 이란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거리로 나온 책〉에서는 '거리도서전' 을 통해 행사



신나는 무대공연으로 문을 연 제2회 와우북페스티벌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과 부모들



제2회 와우북페스티벌 개막식에 주최측인 한국출판인회의 김혜경회장과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명호 회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함께 만든 사람들

고양시어린이도서관협의회, 어린이도서관웃는책, 극단영, 극단사다리, 그림책작가유애로, 느낌공방on단다, 닭똥집디자인, 동화읽는어른모임(서울지부), 모단메아리, 베가스튜디오, 보이스액터, 이슬람문화연구소, 일상예술창작센터, 책공방, 풀로엮은집, 클럽문화협회, 마포평생학습관, Bric 클럽打, 카페이리, 카페FACTORY, 카페ZIBE, 클럽TOOL, 클럽EVANS, 360@

참가출판사및출판관련단체

김영사, 더난출판, 다섯수레, 돌베개, 들녘, 동녘, 뜨인돌, 마음산책, 문학과지성사, M&K, 민음사, 바다출판사, 보리, 범우사, 북이십일, 사회평론, 사계절, 새로운사람들, 실천문학, 안그래픽스, 애플트리태일즈, 열린책들, 열림원, 우리교육, 은행나무, 이가서, 이른아침, 자음과모음, 작가정신, 창비, 책세상, 청년사, 청어람미디어, 푸른숲, 풀빛, 한길사, 해냄, 해바라기, 현암사, 흥성사, 흥익출판사, 휴머니스트,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자연과학출판인회의, onbook.tv

에 참가한 60여개 출판사들의 대표작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저자와의 만남, 사인회, 낭독의 밤, 강연 등 책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통해 책읽기의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의 하나로 열림원은 '유림'의 작가 최인호를 초대해 유교의 역사와 문화, 미덕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했고, 푸른숲은 '지도밖으로 행군하라'의 저자인 한비야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이밖에도 각 출판사들은 각종 이벤트를 준비해 관객들에게 책의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책놀이터,

어린이 강연 행사를 통해 주말을 맞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다.

〈함께 읽는 책〉은 혼자서 읽는 책읽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책읽기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사로, 주차장 거리 안에 있는 소공원(어울마당)에 만들어진 '책놀이터'에서 책장에서 책을 꺼내 책읽기 좋게 만들어놓은 야외서재를 즐길 수 있었으며, 각종 영상, 음악, 마임이 결합된 새로운 동화읽기를 볼 수 있었다. '와우 책시장'에서는 손때 묻고, 정든 책, 직접 만든 창작물들을



전시장에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도 있었다. 오래된 책을 사고 팔 수 있는 '와우책시장'

소공원에서는 각종 영상, 책, 마임이 결합된 동화읽기가 진행됐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전시장,



놀이터에 마련된 책장에서 아이들이 책을 꺼내보고 있다.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시장을 열었으며, '북캐스터가 읽어주는 책'에서는 공중과 아나운서들이 자신들이 아끼는 작품들을 읽어주기도 했다. <우리가 쓰는 책>은 전시와 포럼으로 진지하게 새로운 책읽기와 창작을 모색하자는 자리로, 문화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책과 예술의 다양한 결합을 실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를 읽자'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인도 등의 역사, 문학, 예술, 인문, 지리, 여행, 음악을 느낄 수 있는 500여 권의 도서들을 한자리에 살피볼 수 있었으며, '내가 만든 책 이야기'에서는 출판계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기록의 창'에서 연감과 백서의 중요성을, '크리에이터스 포럼'에서는 출판 전문분야의 창작의 가치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공원에 마련된 책놀이터 그늘막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

책읽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

책읽기의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가 '책읽기는 정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롭고, 활동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세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

데, '와우북페스티벌'은 독서야말로 상상력을 기반으로 가장 활발하고, 흥미진진한 모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책이 주는 풍요로움과 상상의 즐거움을 거리를 걸으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책의 의미를 텍스트에만 한정짓지 않고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책, 저자와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 등으로 다각화해 일반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이때문에 올해 2회를 맞은 '와우북페스티벌'은 다른 도서 전시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찾게 되는 지도 모른다. 내년에 열리는 3회 와우북페스티벌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